/ 신임 검사장 인터뷰 /

"법질서 확립·인권보호에 앞장"

신상규 광주고검장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신상규(60) 신임 광주고검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검찰의 소임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라며 "검찰 혁신의 궁극적 방향도 법질서 유지와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고검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검찰 조직이 탄생한 이유이자 존립의 근거"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고검장은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법질서 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경제회복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국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되,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적법절차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직원간 인화 단결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경청하고 불의에 대해선 투철한 정의감으로 거악을 척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시각에서 업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화로 뭉쳐 일체감을 공유하고 지혜와 힘을 모을 때 조직의 역량이 극대화된다"며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명랑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신 고검장은 강원 철원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2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서울지검 3차장, 광주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역경제 살리기 힘 보태겠다"

박영렬 광주지검장

"지역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박영렬(53) 신임 광주지검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더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최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살아 숨 쉬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검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다"며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행위, 불법사금융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 등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또 "법 질서와 경제성장은 수레의 두 바퀴 처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의 평균 법 질서 수준만 유지한다면 GDP(국내총생산)이 1% 성장이 가능할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검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신뢰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인권 보장'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 임무를 맡고 있다"며 "시대적 상황은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권 보장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위나 재력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신을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경기 하남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서울 남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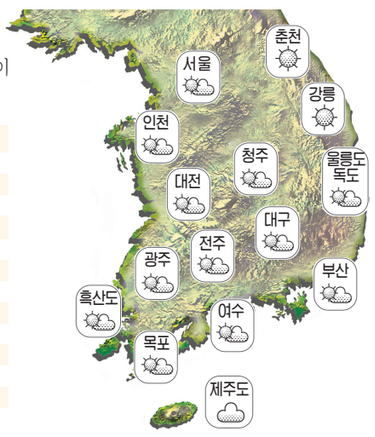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7시 39분 해짐 17시 48분 / 달뜸 02시 39분 달짐 12시 39분

한 낮 포근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맑은 뒤 흐림	0/10℃
목 포	맑은 뒤 흐림	0/10℃
여 수	맑은 뒤 흐림	2/10℃
완 도	맑은 뒤 흐림	0/10℃
구 례	맑은 뒤 흐림	-4/11℃
해 남	맑은 뒤 흐림	-2/10℃
장 흥	맑은 뒤 흐림	-3/10℃
고 흥	맑은 뒤 흐림	-4/11℃
순 천	맑은 뒤 흐림	1/11℃
영 광	맑은 뒤 흐림	-1/10℃
진 도	맑은 뒤 흐림	-1/11℃
전 주	맑은 뒤 흐림	-1/10℃
남 원	맑은 뒤 흐림	-3/11℃
흑산도	맑은 뒤 흐림	4/9℃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서	0.5~1.0m
먼바다	북~남동	0.5~1.5m

	밀물	썰물
목포	09:29 21:09	01:56 15:23
여수	04:54 16:17	11:02 22: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날 씨						
최저/최고	2/7	2/7	-3/-1	-6/-1	-6/1	-6/2

설연휴 '雪雪雪…'

광주·전남 눈 내리고 강추위

다가오는 설 명절에 광주·전남 지역은 몹시 추울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설 연휴 전인 23~25일 광주·전남지역에는 3일 연속 눈이 내릴 것"이라며 "설날인 26일은 눈은 내리지 않을 전망이지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쌓인 눈이 얼어붙어 귀성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설날인 26일 광주의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2~3도 낮은 영하 6도~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예상 적설량을 지금 예보하기는 힘들다"며 "귀성길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동왕자·선화공주 '설화' 깨졌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무왕 왕비는 좌평의 딸" 기록

창건 시기와 내력이 설화성 짙은 기록으로만 전하는 전북 익산 미륵사가 설화처럼 백제 제30대 무왕(武王.재위 600-641년) 때 그 왕후가 창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설화에서는 무왕과 그 왕비인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善花)가 같이 사찰을 중건했다고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백제 당시 기록에서는 그 왕비가 백제 최고 관직인 좌평(佐平)의 딸이라는 구절이 발견돼 주목된다. 나아가 미륵사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무왕 재위 시대의 기해년(己亥年), 즉 서기 639년(무왕 재위 40년)으로 나타났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석탑 1층 심주(心柱) 윗면 중앙에서 사리공(舍利孔)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백제 왕실의 안녕을 위해 무왕 왕후가 조성한 사리장엄구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를 위한 해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연합뉴스

백제 사리장엄구는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부여 왕흥사지 목탑터 출토 창왕(昌王) 시대(577년) 제작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발견이다.

사리공에서는 사리를 담은 금제 사리호(舍利壺)와 석탑 조성 내력을 적은 금판인 금제 사리봉안기(舍利奉安記), 백제 특유의 머리꽂이 장식인 은제 관식(冠飾) 등 각종 유물 500여 점이 수습됐다. /연합뉴스

시험문제 3년째 그대로 출제

광주교육청 감사, 일부 학교 운영 엉망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특정 과목의 시험문제를 3년째 그대로 출제하는 등 학교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동안 일선 고교 6곳(사립 2, 공립 2)과 산하 기관 2곳 등 8곳에 대한 감사에서 모두 18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34명이 주의, 15명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과다 지급된 270만원은 회수토록 했다.

광주시 북구 K고는 도덕, 미술, 국어 등 교과 이수 단위별 수업시수(時數)를 부족하게 운영하고, 1학년 모 과목은 9문제를 2006년부터 3년간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는 수학여행 위탁업체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으며, 노트북 컴퓨터 구입, 진학실 냉방기 설치 예산으로 특별 교부된 2천만원 중 잔여금액 1천600여만원을 교육청 승인없이 교사 휴게실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다 적발됐다.

S여고는 극빈 학생 선정 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선정하고 현금 지급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으며, J고는 수업시수 부족, 일부 교직원 가족수당 부당 과다 지급 등이 지적됐다.

시 교육청 산하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 기관은 부적정한 청소용역비 징수와 집행, 야외공연장 도장보수 분할발주에 따른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에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장 공모제 5명 선발

시·도 교육청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19일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5개 학교의 교장을 발표했다.

광주에선 동곡초 유상귀(유덕초 교감), 삼도초 이정관(수완초 교사), 수완중 김혁순(동명중 교사) 등 3명이고, 전남은 보성회천초 황기민(진도석교초 교감), 고흥도덕중 김효종(고흥도덕중 교사) 등 2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공모제 4차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교장공모와 서류심사, 발표 및 면접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동부교육청 교육장

임용 후보 3명 확정

광주시교육청은 19일 "동부교육청 교육장 임용 예정 후보로 장복일 장학진흥과장과 노창수 운남고 교장, 이상태 두암중 교장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최종 후보자 1명을 결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청할 계획이며, 2월 중순께나 신임 동부교육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장 공모제는 안순일 현 교육감의 개방형 인사제도 정착 공약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시행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